



## 제16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 대학평가와 대학발전 -

### ▲ 제16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04년 5월 28일 (금) 숙명여자대학교 제2창학캠퍼스 사회교육관 켄마홀에서 ‘대학평가와 대학발전’을 주제로 제16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포럼은 지식기반 사회를 맞아 지식근로자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인식과 정부, 산업계, 학계가 연구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적 특성이 있는 산학협력 모형을 개발하고, 한층 더 활성화되

고 내실 있는 산학협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최되었다.

‘대학평가와 대학발전’을 주제로 한 정기언 차관보(교육인적자원부)의 기조발표에 이어, ‘대학종합평가와 대학발전 : 성과와 과제’ (신재철 전남대 교수)와 ‘학문분야 평가의 과제와 개선방안’ (이영련 대교협 평가지원부장)을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교육』에서는 이번 정책포럼의 주제발표문을 발췌하여 게재한다.

## 주제발표 1

# 대학종합평가와 대학발전 : 성과와 과제

## I.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성과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학간 경쟁체제를 구축하거나 대학에 대한 평가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학간 경쟁체제는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서열화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들과 학부모들이 대학의 교육과 연구 수준에 관계없이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고 있고, 또 수도권 대학 중에서도 세칭 일류대학을 선호하고 있는 한 대학간 경쟁체제는 별 효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곧 대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평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마치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해서 시험을 보게 하는 논리와 같다. 따라서 국제수준의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대학을 국제적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대학의 발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평가는 대학의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는 종합평가이다.

박남기 외(2001)가 대학총장, 각 대학의 평가주무 부서장, 평가주무 담당직원, 대학평가 참여교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교협의 대학종합평가는 학문 분야와 교육부 및 언론사의 평가보다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또

한 “대학종합평가가 대학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였는가”라는 질문에 51.5%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교협이 실시하고 있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가 대학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대학종합평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대학종합평가에 관한 연구들(박남기 외, 2001 ; 어운배 외, 1998 ; 최한선 외, 2000 ; 허귀진 외, 2001)의 결과를 종합하면,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성과는 대략 세 가지이다.

첫째, 대학교육의 질과 연구력을 향상시켰다는 것이다. 대학평가에 있어서 대학교육의 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평가의 방법이나 내용이 달라야 하겠지만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주로 투입과 과정 요인들의 개선에 초점을 두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대학종합평가가 실시된 이후 대학들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로 투입과 과정 요인에 초점을 둔 제도적 장치를 설치·운영하여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장치들 중 교육프로그램과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의 충실화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것들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학생 성적 평가 결과의 공개 ; ② 학기 시작 전 수업계획서 공개 ; ③ 수업 출석 관리의 엄정화 ; ④ 강의평가제의 정착 ; ⑤ 교육과정의 주기적인 개정 등. 그리고 대학에서 연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수교수를 유치·충원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예 : 공개채용, 특별채용, 안식년제 도입 등)를 설치하였으며,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각종 유인체제(예 : 교수의 임용과 승진 및 성과급제 실시)에 있어 연구실적에 가중치 부여, 연구실적몰로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등재’ 또는

‘등재후보’로 인정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만 인정 등)를 도입하고 있고, 이러한 장치들은 교수의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대학운영의 합리성을 증대시켰다. 즉 대학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시설·설비, 행정조직과 인사 등을 확보하고 유지하며 배분함에 있어서 대학종합평가 이후 합리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확보된 재원을 균형 있게 예산에 편성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 그리고 조직의 합리성을 도모하며 업무의 분권화와 효율화를 기하고 교직원인사를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내용에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때문에 대학이 평가편람에 제시된 대로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학운영의 합리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대학행정과 재정운영 및 학사조직을 개선하는 일은 이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특히 대교협의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립, 예산편성의 합리성 제고, 업무의 전산화, 조직구조의 조정, 보직과 각종 위원회 감소 등을 통하여 대학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학사조직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셋째,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대학의 자구 노력에 기여하였다. 대학들은 현재 홍보를 강화하고 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대학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대학운영의 합리화 및 전문화를 통한 대학운영의 합리성 제고 노력, 교육·연구 시설의 확대를 통한 여건 개선, 체계적인 대학발전계획 수립과 실행으로 대학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다. 더욱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고등학교 졸업생의 감소로 대학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대학들은 자구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종합평가인정제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별 대학들이 처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의 마련, 대학종합발전계획의 체계적 수립과 대학의 특성화 및 다양화를 촉진하는 평가를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대학종합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대학에 대한 평가 내용이 대학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대학의 발전은 크게 외적인 발전과 내적인 발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허귀진 외, 2001 : 197-198). 외적인 발전은 교수의 지속적인 증가, 시설·설비의 확충, 최첨단 교내 전산망 구축, 도서관의 전산화 등 교육과 연구 여건의 발전을 의미한다. 그리고 내적인 발전은 대학의 각종 규정의 개폐, 학생학업성취평가의 엄정화와 교수업적평가제의 도입 등으로 대학 내 연구와 면학 분위기가 조성된 것을 의미한다.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대학의 외적 발전과 내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것들을 평가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대학의 양적·질적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대학은 자체 발전계획을 수립·실천·평가하는 순환적 과정을 거치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대학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 Ⅱ.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과제

이상과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정 기준의 타당성과 대학평가의 자율성 및 평가 결과의 비효율적 활용(박남기 외, 2001), 특성화 유도의 미흡과 평가의 엄정성 확립 노력 부족 및 대학의 국제경쟁력 유도 노력 부진(최한선 외, 2000)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학종합평가인정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대학종합평가가 대학 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는 곧 제3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 1. 평가의 목적

대학평가의 목표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대학의 잠재적인 능력과 에너지를 결집하여 대학을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대학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종합평가의 목적이 너무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 자칫 그 초점이 흐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모순될 소지도 많다. 대학평가를 통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것 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학평가를 통해 기대하는 것을 추출하여 대학사회의 변화에 알맞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주기 대학종합평가의 기본방향을 “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성화를 촉진하는 평가’, ‘자율성을 강화하는 평가’, ‘국제화를 지향하는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 2. 평가 내용

제3주기의 대학종합평가인정제가 내세울 가장 큰 명제는 “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 자율화·특성화·국제화를 지향하는 대학평가”이어야 하며, 이의 달성을 위한 방향으로 ① 대학의 특성화를 촉진하는 평가 ②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평가 ③ 대학의 국제화를 추구하는 평가로 되어야 할 것이다.

### 1) 대학의 특성화를 촉진하는 평가 내용 구성

첫째, 백화점식 평가항목 개발을 지양하고 특성화 위주의 평가를 강화한다. 대학의 발전이 단순히 규모를 확대하거나 백화점 식으로 학문을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세계적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렵다. 평가항목 구성을 대학교육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는 나열식 구성을 지양하고, 대학의 특성화가 강조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평가항목의 1/3 정도를 대학별 특성화 평가에 배당하여 문항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밖의 모든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일반적 평가항목은 많은 부분을 삭제하거나 혹은 가중치의 비중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별 특성화 평가에 있어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특성화의 계획이나 청사진보다 대학이 추구하는 특성화 전략의 적절성과 지금까지의 특성화를 위한 노력과 실적 중심의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마다 다른 특성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과 기준을 다양화하여 대학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도록 한다. 대학의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평가편람의 유형을 두

세 가지로 다양화하여 대학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항목이나 기준 및 가중치를 배당하는 부분이 특성화 영역에 따라 달리 평가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대학간의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통 항목과 기준이 포함되겠지만, 유형에 따라 강조하는 영역이나 항목이 두드러지게 강조되도록 문항과 배점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저것 조금씩 잘 하는 대학보다는 한 가지 영역이라도 국제적 수준을 갖춘 대학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대학평가의 기본 방향이라면 평가항목과 기준의 제시가 대학의 특성에 맞도록 다양화하는 방안은 대학평가의 정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다.

## 2)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평가 내용 구성

첫째,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적 절차에 대해 평가를 강화한다.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 구성원 개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의 존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학의 운영에 있어서도 집단 구성원들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대학 내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분위기는 곧 사고의 자유, 학문의 자유로 이어져서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대학의 운영에 있어 구성원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의견 수렴의 과정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학 내에 자율적인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은 대학의 자율성을 판단하는 몇 가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평가항목 구성에 있어 일부 영역은 대학의 자율적인 항목 구성을 통하여 자체평가

가 가능하도록 한다. 대학 자체 구성 항목에 대한 배점과 기준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평가 항목들을 만들어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각각의 개별 대학들은 일률적인 평가 항목에 대해 갖는 불만을 줄이고 자신들의 대학에 맞는 항목들을 스스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평가는 각각의 대학들이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평가'가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 3) 대학의 국제화를 추구하는 평가문항 구성

첫째,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평가기준을 '국제수준'과 '국내수준'으로 이원화하여 제시하고, 해당 대학이 기준을 선택하여 평가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하여 평가항목의 영역별로 '국제수준'의 기준과 '국내수준'의 기준을 이원적으로 제시하여 평가를 받는 대학이 스스로 어떤 기준에 따라 '국제수준'을 선택하여 우수한 평가를 얻으면 그 영역의 가산점이 대폭 증가하여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배점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의 특성화 영역에 대하여 국제적 수준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대학의 특성화를 촉진하고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이 선정한 특성화 영역에 대하여는 국제수준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그 배점의 가중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수월성 추구는 대학 특성화의 틀 속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적 수준의 평가 기준 적용에 있어

양적 측면 못지 않게 질적 수준이 평가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교수가 몇 명인가 하는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나 우수한 교수진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질적 측면이 더욱 강조될 수 있도록 평가 준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평가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정량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정량적인 평가는 숫자가 갖는 성질상 대학들이 갖는 다양한 특성을 획일화하여 많고 적음만을 나타내 줄 수 있을 뿐이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왜 그런 숫자가 나오는지에 대하여 수량적 평가는 우리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 정량적 평가는 비교하는 데에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대학마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제1주기와 제2주기에서도 정량적인 평가 항목보다는 정성적인 평가 항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제3주기의 평가 항목 구성에서는 이러한 면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평가방법

향후 추진될 제3주기 대학평가에서는 새로운 대학평가의 목적과 방향을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평가를 기획·준비하는 동시에, 이를 대학의 요구와 주장을 고려하면서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학종합평가에서 요구되는 평가준거는 일반적으로 평가 대상으로 삼는 대학의 기능이나 질적 속성, 또는 추구하는 가치나 성과를 중시하여 설정하거나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목표나 산출결과 등을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향후 대학종합평가는 개별 대학의 자율성과 수월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특성화와 국제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평가가 기획되고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평가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효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의 현황과 실상을 타당하고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지수)와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대학교육의 효과와 영향을 타당하고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3주기 대학종합평가에서는 평가위원, 또는 평가팀들 간의 일치도와 합치도를 유지하여 타당성 있고 신뢰성 있는 평가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평가위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실한 교육훈련이 요청된다. 또한, 개별 대학이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이고 선택적으로 대학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융통성과 유연성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 4. 제도와 운영

제도와 운영측면에서 바람직한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패러다임 정립을 위해 몇 가지 제기되는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종합평가의 취지, 목적, 필요성 등에 비추어 대학 구성원들은 물론 사회에서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없다. 다만 대학종합평가를 운영·실시하는 과정에서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기준, 준거와 지표의 타당성, 평가결과의 신뢰성 등이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대학종합평가인정제도의 합리적인 정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개선이 요망된다.

둘째, 대학평가의 주체 및 실시기구에 대해서는 1984년 이후 지금까지 평가업무의 노하우(know-how)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대교협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다. 다만, 대학평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선과 더불어 대교협과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사회 기관과 좀더 유기적인 협력·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계체제는 대학평가 운영의 합리성 제고와 평가결과의 사회적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대학평가 실시과정 중 개별대학이 준비하는 자체평가에 있어서 대학 구성원들은 행·재정적 부담이나 형식적인 서류, 자료 수집과 정리, 이로 인한 학사업무 지장 초래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평가의 본래의 취지 구현과 정보체계의 구축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 준비과정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

넷째, 현지방문평가 측면에서는 학기 중 방문평가로 인한 학사운영 지장 초래, 평가단의 전문성 결여, 짧은 평가 일정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지방문평가단의 구성이나 일정 등에서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대학평가 실시 주기와 실시단위 측면에서 보면, 대학의 특성,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단위로 획일적인 평가기준의 적용함으로 인하여 대학평가를 통한 대학의 자율화, 특성화, 국제화를 구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전국적인 단

위로 대학종합평가를 실시하기보다는 대학의 목적별·유형별, 지역별·권역별, 규모별 등 대학의 제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평가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이 평가업무를 충분히 준비하고, 학사업무의 충실화를 위해서 현행 5년의 주기를 7년 주기로의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5. 결과 활용

대학종합평가의 결과활용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결과의 활용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며, 대학 구성원들은 대부분 결과활용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에 대하여 지원과 혜택을 주어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종합평가의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은 대체로 평가결과의 공개방식에 의한 활용, 대학 자체의 활용, 정부부처와 사회단체 및 기업의 활용 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평가결과를 사회에 공개하는 방법을 통해 평가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대학과 대학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평가에 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를 '등급별'로 언론기관, 정부관련 부처, 한국학술진흥재단, 과학기술재단, 200대 기업, 국·민영연구소 등에 평가결과를 직접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별대학에 대한 평가결과 통보는 전체 대학 중 최고점과 최저점, 평균점, 그리고 개별대학의 강점과 약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개별대학들이 평가결과에 나타난 대학의 문제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진단하여 문제를 해소하고 대학발전에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평가결과를 대학이 자체적으로 활용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학은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대학구조와 경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거나 대학의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할 수 있다. 특히 교수들의 업적평가 및 강의평가와 연계하여 대학의 교육과 연구력의 제고에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개혁프로그램(예 : 교육, 연구, 행정, 시설, 봉사 등)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평가결과가 높게 나온 대학은 그것을 사회에 공개함으로써 당해 대학에 대한 사회의 인지도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 이점에서 대학평가의 신뢰성과 타당도 및 엄정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대학은 학교의 예산편성, 인원확보 계획 수립, 편입생과 전학생의 타 대학 학점인정, 타 대학 출신대학원 신입생의 자질 판단, 대학 발전을 위한 구성원들에 대한 동기부여에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대학 밖의 정부부처, 사회조직(예 : 학술진흥재단, 과학기술재단 등), 기업체 등은 평가결과를 기초로 대학을 지원하거나 당해 대학 소속 교수나 출신 학생들에 대해 혜택을 줌으로써 평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먼저, 정부부처, 예를 들면, 교육부는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타 사회조직은 연구비 배정, 장학금 배정, 보조금 배정 등에 대학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체는 사원을 채용하기 위한 전형, 연구용역의 수탁자 선정, 장학금 수혜자 선정, 공동연구조직(연구소, 컨소시엄)의 구성 등에 대학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이 대학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와 평가결과에 대하여 대교협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교육부를 포함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평가결과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 주제발표 2

### 학문분야평가의 과제와 개선방안

#### I. 학문분야 평가의 경과 및 성격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1982년이래 대학 전반을 평가하는 5년 주기의 종합평가를 2주기(1주기 : 1982~86, 2주기 1988~92)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1990년까지 개별학과나 학문계열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학과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후 대교협은 대학평가인정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와 협의 하에 1992년부터 학과평가를 '학과평가인정제'로 전환하여 매년 2-3개의 학과를 대상으로 학과평가인정제를 실시하였다. 특히 1999년부터는 대학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대학의 학문분야 경쟁력 제고와 질 관리의 관점에서 '교육부의 위탁사업'으로 국가의 예산지원에 의해 수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자각경과 관련하여 국제적 상호인증이 필요한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수준의 평가기구들이 설립되어 대교협과 별도로 학문분야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 동안



공학분야의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2001년부터 총 9개교 57개 프로그램, 의학교육을 평가하는 의과대학 평가인정위원회는 2000년부터 총 21개교, 그리고 간호학분야를 평가하는 간호평가원은 2002년부터 4개교를 평가하였다. 또한 언론사인 중앙일보에서도 학문분야 평가를 독자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 II. 학문분야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교수의 연구와 사회봉사 임무를 고취하며, 특성 있는 학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학문평가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대교협의 학문분야 평가인정제는 국내대학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 및 연구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학문분야 평가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대교협, 2002).

- 1) 학문분야에 대한 인정평가 : 교육여건과 교육의 수월성 측면에서 일정수준 이상이 되도록 자구적 노력을 경주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해당학문 분야의 발전을 도모한다.
- 2) 학문분야의 국가적 경쟁력 제고 : 상대적인 평가체제를 강화하여 개별대학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해당 학문분야의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 3) 학문분야의 자구노력과 책무성 향상 : 자체평가를 통해 자신의 문제점이나 취약점을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스스

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사회적 책무성과 공신력을 제고한다. 또한 학과의 발전 및 특성화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그 전략을 수립하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수월성 제고에 기여한다.

- 4) 대학 재정지원의 확충 : 교육여건을 자체 점검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는 해당 학문분야의 현실을 파악하여 국가적 지원계획수립하고, 업계의 산학협력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5) 정부의 학문분야에 대한 각종 재정 및 연구지원사업을 평가결과와 연계함으로써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수행에 도움을 준다.
- 6) 대학 진학자 및 대학졸업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대학 서비스의 수요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III. 현행 학문분야 평가의 문제점

현행 대교협에 의한 학문분야 평가는 오랜 평가관리 경험, 해당 학문분야 재직교수들에 의한 자체평가 성격과 많은 평가위원의 참여와 다양한 평가단계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문분야 평가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시행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2003년도 학문분야 평가 추진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과 대교협에서 인식하고 있는 문제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다수 기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기구 간 유기적인 협

- 조체제가 미흡하여 대학의 평가부담이 과중하다.
- 2) 평가주기와 평가대상 학문분야의 수가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4년제 대학에서 운영되는 학과(전공)는 계열별로 통합한다 할지라도 40여개에 이르나 학문분야 평가는 매년 2~3개 학과(전공)에 불과하여 평가의 시의성이 부족하다.
  - 3) 평가대상 분야 선정과 평가사업 시행이 당해 연도 내에서 이루어져 평가자와 대학 모두 준비기간이 부족하다.
  - 4) 대학의 특성과 학문의 고유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국제교류에 대비한 대학 평가 및 상호인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더욱 타당한 평가기준과 평가방식의 개발이 요구된다.
  - 5) 대학에 대한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족하며, 평가결과의 활용이 미흡하다.
  - 6) 평가의 법적 근거가 미흡해 대학이 평가를 거부할 경우 적절한 제재방안이 없다.

#### Ⅳ. 학문분야 평가의 개선 방안

대교협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문분야 평가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학회 및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학문분야 평가 개선방안을 2005년도 학문분야 평가에서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2004년에는 이를 과도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1. 평가시스템 구축

유관부처, 민간평가기구, 학회 등이 참여하

는 대학평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대교협과 민간평가 기구의 역할분담을 통해 평가 자료의 공유 등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기존 대교협 평가지원부를 '대학평가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대학평가인정위원회, 대학평가기획위원회 등 기존 평가조직을 정비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학문분야별 인증제 도입을 검토한다.

##### 2. 5년 주기 평가예고제도 실시

대학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평가대상 학문분야의 사전예고제도를 도입한다. 학문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5년 주기를 원칙으로 하고 학문분야에 따라 평가주기를 조정한다. 발전 속도가 빠른 학문, 국가발전과 밀접한 전략적인 학문(IT, 등 6대 전략산업분야) 등은 별도로 평가주기를 선정한다.

평가에 필요한 주요 정량지표 자료를 DB화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학술진흥재단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상호 호환성을 강화한다. DB 자료의 주기적 점검으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다양한 평가기관이 DB를 활용하도록 하여 대학의 업무부담을 점차 경감시켜 나간다. 또한 평가자료 DB를 통해 정량평가는 매년 실시한다.

##### 3. 대학 및 학문의 특성에 기초한 평가

대학 및 학문분야의 특성에 맞게 평가항목 가중치를 조정하여 유형별 평가편람을 제공하고, 대학이 스스로 평가유형을 선택하도록 한다. 특성화 영역을 포함한 대학 발전목표(계

획)를 수립하도록 하여 발전목표대비 성과 평가를 병행한다. 일정한 항목의 경우 전 주기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향상 정도를 평가한다.

학문 고유성에 따른 평가 및 국제적 평가기준을 접목한다. 순수학문분야, 전문교육분야, 공학 등 학문의 고유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평가한다. 자격증 관련 국제적 상호인증이 필요 학문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교육 관련 평가영역부터 우선적으로 국제적 평가기준을 도입한다. CHEA(미국), NARIC(유럽), NOOSR(호주) 등 평가관련 국제기구와 학점상호인정, 평가결과 상호인정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 4. 평가의 전문성 강화

평가자료 DB로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고, 자체평가 및 현지 실사는 정성적 평가 중심으로 실시하여 컨설팅 기능을 강화한다. 대학교수, 전문연구소 연구원 등 다양한 관계자를 평가에 참여토록 한다. 평가위원 풀체 도입, 평가위원에 대한 연수 강화 등을 통하여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평가팀간의 차이를 극복한다.

#### 5. 평가결과의 다양화 및 활용도 제고

대학특성별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대학이 선택한 유형별 평가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학교규모, 설립주체(국공립 및 사립 등), 설립시기 등을 반영하여 결과를 발표한다. 연구실적, 취업률 등 세부 평가영역에 따라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평가결과의 상시 공개 및 열람시스템을 구축한다. 대학진학, 기업체 사원

채용 및 연구비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수요자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상시 제공한다. 이를 위해 대교협은 대학평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학문분야 평가결과를 한국 학술진흥재단 연구비 지원 및 행·재정 지원의 기초로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시 평가항목은 사업목적에 맞는 최소항목으로 한정하여 평가하고 기타 평가항목은 학문분야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 V. 2004년도 학문분야 평가 추진계획

### 1. 평가대상 학문분야

2004년도 대교협의 학문분야 평가대상은 기계공학분야(75개교), 생물·생명공학분야(90개교), 신문방송학분야(70개교)로서, '졸업생 3회 이상 배출' 등 일정요건을 갖춘 학과(전공)의 학부와 대학원이다.

### 2. 주요 개선사항

#### 1) 관련 학회·평가기구와의 협력 시스템 강화

학문분야평가는 해당 분야 교수·전문가가 주도하는 자율평가·동료평가라는 취지를 살려 평가의 전 과정에서 관련 학회·연구센터·분야별 평가기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학회 및 기관, 평가대상 대학 등에서 추천한 교수 및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풀'을 구성한 후 관련학회 및 기관 대표자들과 협의를 거쳐 분야별 평가 편람 및

기준 개발 위원회, 동 자문위원회, 정량·서면평가 및 현지 방문평가 평가위원단 등을 선정한다.

공학, 의학, 간호학 등 해당분야 민간평가기구 있는 경우 상호 협력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평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예컨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평가를 받아 인증 유효 기간 중에 있는 대학이나 당해 연도에 공인원의 인증평가가 예정되어 있는 대학의 평가대상 학문분야의 경우, 해당 대학의 의사에 따라 공인원의 인증평가 결과를 대교협 대학평가인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인정'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수대학 선정 등 '경쟁력 평가'의 경우, 대학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되, '경쟁력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거나 공인원의 인증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에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것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해당학문분야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개발에 민간평가기구 관계자(또는 추천인)를 참여하도록 한다. 대교협의 해당 학문분야 평가편람 및 기준 개발에 민간 평가기구의 평가항목 및 기준(제출 서식 포함)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일치시켜 나가도록 한다.

## 2) 평가항목의 축소 및 자체평가 보고서 양식의 간소화

평가편람 및 기준에 대해서 제기된 문제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평가항목을 축소하고 자체평가보고서의 양식을 개조식으로 간소화함으로써 대학의 평가준비에 따른 부담을 경감

한다. 한편, 정량평가지표는 최대한 DB를 활용하여 향후 대학의 평가부담을 완화시킨다.

대학의 특성화·다양화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 특성(설립별, 유형별, 규모별 등)에 맞게 가중치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평가편람 개발을 모색한다. 예를 들면 기존의 6개 평가영역을 발전계획 및 특성화 전략, 교육, 연구 등 3개 항목으로 축소하고, 각 영역에 대한 비중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학이 특성에 따라 선택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40여 개에 달하는 평가항목도 핵심적 항목 중심으로 통합 및 조정하여 학문분야의 특성에 따라 20~30개 정도로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일단 학문분야별 평가편람 및 기준개발위원회에서 평가편람 및 평가기준에 대한 기본안이 정해지면 별도의 각 분야별 자문위원회, 평가기획위원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용을 확정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

## 3)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활용

(1) 정량평가에 DB 활용 및 자체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2004년 8월까지 정량적 평가자료 입력을 위한 DB 구축 완료하여 정량적 평가항목은 별도의 보고서 제출 없이 관련 자료의 DB 입력으로 대신한다. 정성적 평가항목은 교육과정·특성화·발전계획 등 관련 자료와 개조식으로 작성한 간략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해당 학문분야 평가위원회는 1차 평가시에는 DB 입력 자료의 검토 및 현지 방문평가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 제출 자료 및 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한 서면평가 등을 수행한다.

## (2) 현지방문평가와 컨설팅 기능의 강화

현지방문평가는 원칙적으로 전체 평가대상 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정성적 평가 위주로 해당 학문분야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 제시 등 컨설팅 기능을 강화한다. 평가의 전문성·신뢰도 제고하고 현지 평가팀간의 차이를 축소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사전 워크숍 강화, 극단 평가위원의 점수 배제 등 대책을 강구한다. 현지방문평가에서는 교육과정·특성화·발전계획 등 교육과 연구의 질적 내용 평가에 중점을 둔다. 또한 평가 영역 또는 항목별로 '실적' 평가와 '발전계획' 평가를 병행하여 지속적인 발전 노력을 유도한다.

## (3) 평가결과의 정책적 활용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 강구

총점에 의한 순위 발표는 지양하고, '최우수-우수-보통(양호, 인정)-개선요망' 등 등급별 평가결과를 발표하되, '우수' 이상의 경우, 평가 점수 공개를 검토한다. 평가결과 발표는 설립별, 유형별, 규모별 등 대학 특성을 고려하여 특성별로 우수대학을 선정함으로써 동등한 조건 하에서의 경쟁을 유도한다. 또한 교육, 연구 등 주요 영역 및 세부지표별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평가결과를 학문분야에 대한 연구비 지원 등 중앙부처의 행정·재정적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4) 수요자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학문분야평가 DB 등을 통하여 학문분야별 현황 통계자료, 세부 평가결과 등을 상시 공개하여 정책 당국, 진학예정자, 채용예정자, 연구비 지원 기관 등 수요자들이 수시로 열람·활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

## 3. 평가 시행절차 및 내용

### 1) 평가 실시 학문분야 및 대학 확정

대교협은 대학평가인정위원회의 해당 학문분야 평가계획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각 대학은 학문분야 설치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대교협은 일정한 요건(졸업생 3회 이상 배출)을 갖춘 학과(전공)의 학부와 대학원을 평가대상으로 '편람개발위원회'에서 확정하여 해당 대학에 통보한다.

### 2) 해당 학문분야 평가편람 개발

해당 학문분야 '평가편람개발위원회'에서 학문분야 평가의 지침이 되는 '편람'을 개발한다. 편람에는 각각 학부와 대학원의 '평가영역 및 부문별 가중치'가 설정되어야 하고, 항목별로 '평가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평가영역을 기존의 6개 영역에서 <발전계획 및 특성화 전략>, <교육>, <연구 및 사회봉사> 등 3~4개 영역으로 축소 조정하고, 평가항목 수도 유사항목의 통합조정과 변별력 없는 항목 삭제 등으로 기존의 약 40여 개에서 20~30개 항목으로 축소한다.

정성적인 항목들은 세부 분석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부문은 최대한 정량지표로 전환하고 평가 총점을 100점으로 하되, 대학의 선택에 따라 <교육>과 <연구 및 사회봉사>에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한다. 편람은 대학의 성격 및 세부전공의 특성에 따라 배점(비중)을 달리할 수 있다.

### 3) 자체평가보고서 작성과 DB 구축·운영

각 대학은 해당학문분야 평가편람에 따라 '학문분야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량지표 자료 중 가능한 자료들은 상시 DB를 구축하고, 대학이 상시적으로 DB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며, 평가관리기관에서 상시적으로 자료를 검증하는 체제로 전환 예정이나, 2004년도 평가에서는 모든 평가항목의 관련 자료를 '자체평가보고'에 포함하기를 권장한다. 정량지표 자료는 평가시점으로부터 대상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다만 정성적 평가항목은 개조식으로 기술하더라도 관련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4) 해당 학문분야 평가기준 개발

해당 학문분야 '평가기준개발위원회'는 평가편람의 각 항목별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평가 항목별 점수 산정 표 또는 계산공식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상한점수와 하한점수를 가지고 중간점수는 다단계 또는 선형보간법(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정량적 평가항목 중 특성에 따라 현지 실사평가 완료 후 평가대상대학의 지표분포에 따라 평가기준을 결정한다(예, 학생 1인당 강의실 면적).

#### 5) 1차 정량평가(DB자료) 및 서면평가 수행

해당분야 '평가위원회'에 의한 대학의 DB 입력자료 및 타 기관의 기존 DB, 그리고 대학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이용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정량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정성적 평가항목에 대한 서면평가를 수행한다.

#### 6) 2차 현지방문 평가

해당분야 '평가위원회'에 의한 서면평가 및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현지실사 평가 수행한다. 1개 팀당 4~6명으로 구성하여 각 항목별

로 극단적인 평가자의 평가점수를 제외한 평가 점수 평균으로 한다. 현지 방문 실사결과를 반영하여 DB 자료를 수정 및 보완한다.

#### 7) 평가결과 종합 및 자문

2차 평가위원회는 학문분야 평가결과를 종합한다. 평가위원회 주관 하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 해당 학문분야 평가 및 발전에 관한 세미나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학문분야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그 내용을 종합보고서에 포함한다.

#### 8) 평가결과 발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대교협 평가기획위원회의 자문과 평가인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의해 보도자료 형식으로 대외적으로 발표된다. 개별대학에는 해당대학의 평가 결과와 전체적인 평가 통계표 및 종합보고서가 송부된다. 

